

신채호 문학 다시 읽기의 시론적 고찰*

양진오**

|| 차례 ||

- I. 신채호 문학 다시 읽기의 방향
- II. 한국 근대문학의 또 다른 기원
- III. 신채호 문학 다시 읽기의 의의와 과제

【국문초록】

본고의 연구 목적은 신채호와 그의 텍스트 다시 읽기의 문학적 의미를 시론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데 있다. 필자는 본고를 통해 신채호와 그의 텍스트를 한국 근대문학의 또 다른 기원을 해명하는 문제적 개인이자 텍스트라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필자는 본고를 통해 한국 근대문학을 우리들이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필자는 본고에서 신채호를 한국 근대문학의 장에서 누구보다 열린 근대 주체로 간주하며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본고에서 한국에 노블형 소설을 유입하는 데 공이 큰 이광수의 문학적 위상을 신채호의 위상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신채호는 일본이 주도한 식민지 근대에 순응하는 근대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구속에 간하지 않는 열린 근대 주체가 되기를 열망한 존재였다. 여기서 필자는 식민지 근대가 강요하는 정치적 억압만이 아니라 정파적 개념과 사건, 경계를 가로지르는 그의 지적 도정을 주목하고 있다. 역사의 발견으로 요약되는 신채호의 지적 도정은 궁극적으로 한국 근대문학의 또 다른 기원을 열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다. 필자는 바로 이 점을 주목하며 신채호 문학 다시 읽기의 의미를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 다시 읽기, 주체, 노블, 개념, 이념, 사건, 경계, 식민지 근대

I. 신채호 문학 다시 읽기의 방향

본고의 연구목적은 신채호 문학 다시 읽기의 의미를 시론적 차원에서 고찰하는 데 있다.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신채호와 그의 텍스트를 한국 근대문학의 기원을 해명하는 문제적 개인이자 텍스트라는 점을 밝히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논문을 빌려 한국 근대문학을 우리들이 어떤 시각에서 이해해야 하는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런 이유로 본고에서는 신채호의 어떤 특정한 작품을 대상으로 문학적 성격을 고찰하기보다는 신채호 문학의 전체적 성격과 그의 문학을 어떤 방식과 태도로 재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백년 여의 역사가 누적된 한국 근대문학의 장에 출현한 작가들이 한 둘이 아니다. 연구자로서 이 허다한 작가들 중 어떤 작가를 기억하며 그 작가의 텍스트를 새로이 독해할지 결정하는 일이 쉽지는 않다.¹⁾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선택이 한국 근대문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연구자의 자의식과 긴밀하게 직결되는 까닭이다. 특히 애국계몽의 열망과 식민의 위기가 교차한 한국 근대의 복잡한 성격을 의식하는 연구자라면 이 질문의 간단치 않은 무게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서 한국 근대문학의 장에서 새로이 기억하고 독해할 작가

1)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개인적, 주관적 차원의 기억을 뜻하지 않는다. 알박스(Maurice Halbwachs)에 따르면 기억은 자전적 기억, 역사적 기억, 집합 기억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필자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과거의 사실적 재현이 아니라 당대의 맥락 속에서 재구성된 현재적 과거로 이해한다.

를 선택해야 한다면 필자는 신채호를 선택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상론한 바와 같이 신채호가 한국 근대문학의 성격과 위상을 반성적으로 고찰하는데 상당한 단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채호는 자신의 호를 단재(丹齋)로 정할 만큼 당대 어떤 인물과의 비교를 허락하지 않는 고결한 인물로 흔히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의 고결은 개인적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었으니 그는 사망 이후 오늘날까지도 한국 민족주의와 국혼의 표상으로 정의되고 왔다. 그렇지만 필자가 이 논문에서 신채호 문학 다시 읽기의 의미를 논의하는 것은 신채호를 한국 민족주의와 국혼의 표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필자는 신채호를 한국 민족주의와 국혼의 표상으로 여기는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그렇게만 주장될 경우 신채호와 그의 텍스트가 보이는 매력을 간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통적으로 신채호는 아래와 같이 이해되는 인물이다.

이 시대에 단재를 다시 떠올리는 것은 그의 선각자로서의 노력과 계몽운동 및 민족사 연구에 끼친 공헌 등 학자적 업적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단재의 업적에는 언론 교육 문학상에 끼친 공헌과 독립운동가로서의 업적이 있다. 그의 생애 중 민족운동가로서의 역할은 애국계몽운동에서 보이는 언론활동과 근대민족주의 역사가로서의 업적에서 찾을 수 있다. 그의 국권회복 독립운동 및 아나키즘 운동에서는 철저히 비타협적이고 무력혁명적이었다. 그렇다고 그의 운동은 효과적이었거나 설득력을 가지고 공감대를 얻은 운동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그의 그 같은 운동을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과제도 갖게 된다.²⁾

이 글에서 신채호는 고조되는 식민화의 징후를 예민하게 포착하고 마치

2) 이만열, 『단재 신채호의 민족운동과 역사연구』,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편, 『단재 신채호의 사상과 민족운동』, 경인출판사, 2010, pp.3-4.

선지자처럼 사자후를 토한 선각자로 정의되고 있다. 사실 이만열만이 신채호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선각자와 독립운동가로 정의하는 것은 아니다. 국문학, 국사학, 언론 분야의 내로라하는 중견 학자들의 저작에서 신채호는 언제나 시대의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당대와 대결한 거인으로 묘사되고 있다.³⁾ 더구나 그는 이렇게 기억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내가 신단체를 처음 만난 것은 정주 오산학교에서다. 때는 경술년 당시 나는 오산학교에 교사로 있었고, 단체는 안도산 선생 일행과 함께 조선을 탈출하는 도중에 오산에 들른 것이었다.(……)

단체는 세수할 때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뺨뺨이 든 채로 두 손으로 물을 찍어다가 바르는 버릇이 있었다. 그래서 마룻바닥과 자기 저고리 소매와 바짓가랑이를 온통 물투성이를 만들었다.

우리는 단체가 세수하는 것을 보고 시당이 “에익 응응. 그게 무슨 세수하는 법이람. 고개를 좀 숙이면 방바닥과 옷을 안 질리지”하고 쫓쫓 혀를 치는 것을 보고, 단체는 여전히 고개를 뺨뺨이 하고 두 손으로 물을 찍어다가 낮에 발라서 두 소매 속으로 물이 질질 흘러 들어갔다. “그러면 어때요?”하고 단체는 오산 있는 동안에는 그 세수하는 법을 고치지 아니하였다. 단체는 결코 누말을 들어서 제 소신을 고치는 인물은 아니었다. 남의 사정을 보아서 남의 감정을 꺼려서 저 하고 싶은 일을 아니하는 인물은 아니었다.⁴⁾

신채호는 기개가 상당해서 세수마저 직립 자세로 하더라는 일화의 출처는 이광수의 회고로 보인다. 이광수의 회고에서 신채호는 자신의 기개에 충실한 나머지 주변인들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 강직한 인물로 기억된다. 그런데 이 일화는 일화로 그치지 않고 신채호의 기개와 향심을 표상하

3) 신일철, 『신채호역사사상연구』, 고려대출판부, 1983.

4) 이광수, 「탈출 도중의 단체 인상」 『단체신채호전집』9, pp.77-79.

는 신화가 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고 있다. 그렇지만 신채호가 이처럼 신화와 전설 속의 주인공으로 기억되는 한 신채호를 ‘새로이’ 이해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해진다. 여기서 우리는 성균관 유생에서 민족주의적 애국계몽주의자로, 민족주의적 애국계몽주의자에서 아나키스트로 변모한 신채호의 극적인 삶을 경로를 주목해야 한다. 요컨대 신채호는 선각자였으나 동시에 선각의 경계에 자족하지 않은 인물이기도 하며, 이를 위해 유교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아나키즘 등 당대의 정신과 부단하게 교류한 열린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필자는 신채호를 신화 세계의 절대 영웅으로 일면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자신의 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를 가로지르며 새로운 근대 주체를 기획한 문제적이면서도 열린 인물로 이해하고자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신채호라고 해서 내적 모순과 오류 등 인간적 한계가 없지는 않지만 그와 동시에 그에게는 그 한계에 자족하지 않고자 하는 근대 주체 형성의 열망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자는 것이다. 필자가 신채호 문학 다시 읽기의 의미를 시론적 차원에서 고찰하는 이유는 특정 정치 이념에 구속되지 않는 신채호의 주체 형성의 실천이 돋보인 까닭이다. 그는 자신을 특정 정치 이념과 지점에 한정시키지 않는 열린 근대 주체가 되기를 고대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를 ‘존경’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며,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에 대한 여러 해석과 판단을 반복하기보다는 새로운 신채호를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의 신채호를 보자는 말이다. 이를 감안해 우리는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를 더 탐문하고 그의 텍스트를 더 읽어야 한다. 우리가 오늘날 신채호를 기억하고 그의 작품을 읽는 이유가 그가 단지 선각자로 정의되어서가 아니라는 말이다. 신채호를 부단히 새로운 자기를 형성하는 열린

근대 주체로 이해할 때 그의 진면목이 보인다는 말이다. 신채호를 향한 우리들의 탐문은 이렇게 당연한 평가와 해석을 뛰어넘는 창의적인 지점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이처럼 필자는 신채호를 한국 근대문학의 장에서 누구보다 역동적이며 열린 근대 주체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압도적인 무게로 다가온 근대에 순응하는 근대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일체의 구속에 간하지 않고자 한 열린 근대 주체가 되기를 열망했다는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채호를 열린 근대 주체로 만드는 내적 동력인 역사 개념을 주목해야 한다. 신채호의 역사의 발견은 한국 근대문학의 또 다른 기원을 열어가는 동력인 바, 필자는 바로 이 점을 주목하며 신채호 문학 다시 읽기의 의미를 시론적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Ⅱ. 한국 근대문학의 또 다른 기원

신채호 문학 다시 읽기의 의미를 시론적 차원에서 고찰하는 것은 이광수 문학을 한국 근대문학의 기원으로 설정하는 방식과 그 관행을 반성하자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이광수 문학을 한국 근대문학의 기원으로 독해하는 관행이 학계에 여전히 작동 중이며 이 관행이 지속되는 한, 한국 근대문학의 문제적 성격이 포착될 수 없는 까닭이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먼저 이광수 문학의 성취와 한계를 검토하고 그에 뒤이어 신채호 문학의 성격을 논의하기로 하겠다.

이광수는 한국 근대문학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구현하는 작가임이 분명하다. 먼저 이광수 문학의 성취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기로 하겠다. 식민지 시대 작가 중 최고의 흥행 작가이자 소위 순문학 계열의 작가들을 배출

시키는 데 있어 이광수와 비견될 만한 작가는 없어 보인다. 김윤식이 『이광수와 그의 시대』에서 이광수의 문학사적 위상을 방대한 자료로 밝혀내기도 했지만 이광수를 제외하고 한국 근대문학을 논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먼저 『무정』을 한국 근대소설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독해하는 선학들의 평가를 참조하기로 하자.

『무정』은 그 일련의 표현 형태에 있어서 근대소설의 면모를 갖춘 최초의 작품이다. 마찬가지로, 근대의 문턱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신소설이 제기하고 있는 개화기 인간의 사회 과정 내지는 사회 변화에의 적응의 문제의 한 정점을 대표한다.

전통적인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소실되는 사회적 유동성 가운데서 새로운 근거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며, 또 이를 문학적으로 어떻게 굴절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그 나름으로는 진지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⁵⁾

이광수의 소설은 이념과 서사구조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대문학 초창기의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있어 문학사적 의의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그가 인물형상화의 주제의 통합 및 그럴 듯함을 이끄는 사건 배치와 내면 묘사의 발전된 형태를 예술적으로 구현했고, 또 상대적으로 보아 신소설이 실현했던 상투적 계몽의식을 한층 심화시킨 점도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⁶⁾

『무정』은 우리 근대소설의 문을 연 것이기에 문학사적인 의미에서 기념비적이며 작가 춘원의 그때까지 전생애의 투영이기에 춘원의 모든 문자행위 중에서도 기념비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무정』은 시대를 그린 허구적 소설이지만 동시에 고아로 자라 교사에까지 이른 춘원의 정직한 자서전이기도 하다.⁷⁾

5)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78, p.204.

6) 신동욱, 「1920년대 소설」, 김동욱·이재선 편, 『한국소설사』, 현대문학, 1999, p.397.

선학들의 독해처럼 이광수 작품 중에서 『무정』은 “그 일련의 표현 형태에 있어서 근대소설의 면모를 갖춘 최초의 작품”이거나 “문학사적인 의미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에 해당하며 그의 소설은 “이념과 서사구조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근대문학 초창기의 뛰어난 업적”으로 평가받아 왔고 그 평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임화가 일찍이 이광수의 문학사적 위상을 갈파했듯, 이광수는 개화기의 신소설과 염상섭, 김동인을 이어준 한국 근대문학 형성의 교량 역할을 담당한 작가로, 그를 제외하고 한국 근대문학을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⁸⁾ 여기서 우리는 이광수의 『무정』을 한국에서 서구의 노블형 소설이 유입되고 대중적으로 인정받게 된 사례로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노블형 소설이 소설의 주류 장르로 각광받고 노블형 소설이 대중화된 데에는 『무정』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노블형 소설의 문학적 정당성, 즉 노블중심주의적 소설관의 정당성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과 형성을 문제 삼을 때, 자연스레 떠올릴 수 있는 논의의 기준이 노블중심주의적 소설관이다. 해당 작품이 노블중심적 소설관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부합한다면 과연 어느 수준에서 부합하느냐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과 그 형성의 계보를 추적하는 것이 아주 틀린 방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노블이 한국 근대소설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비중을 고려할 때, 노블중심주의적 관

7) 김윤식, 『『무정』의 문학사적 성격』, 『김윤식전집2』, 솔, 1996, p.126.

8) 임화에 따르면, “춘원의 문학은 위선 그 자신 소위 발아기를 독점하는 존재일 뿐 아니라 이해조, 이인적으로부터의 진화의 결과이고 동시에 동인, 상섭, 빙허 등의 자연주의문학에의 일 매개적 계기였다는 변증법의 견지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다음에는 그의 사회적 역사적 의의를 구체적 현실과의 의존 관계의 법칙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임화문학예술전집』2, 소명출판, 2009, p.390.

점으로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과 그 형성을 확인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블중심주의적 소설관이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과 형성의 문제를 탐구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설관을 절대적 기준으로 고수할 경우 한국의 근대를 지나치게 일면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소치가 큰 까닭이다. 되풀이 하는 말이지만, 한국의 근대는 계몽의 열망과 식민의 위기가 교차되면서도 결국 식민의 위기가 현실화된 대단히 복잡한 역사에 연계되어 있으며, 그런 점에서 한국 근대소설에 관한 독해 역시 이 복잡한 역사를 고려하며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무정』은 노블중심주의적 소설관으로 보자면, 그 성취를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일제의 식민주의 기획에 기본적으로 부합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무정』이 근대의 부정적 계기로서의 식민주의를 암묵적으로 묵인하는 사정과 깊이 연관된 작품이라는 점과 이 작품이 『매일신보』에 편집진의 치밀한 계획 하에 연재되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⁹⁾ 『매일신보』가 1910년대 총독부가 발간한 매체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1910년 강제적인 한일병합 후 총독부는 독자 확보와 더불어 자신들의 식민 통치를 합리화할 목적으로 『매일신보』를 발간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이광수에게 『무정』 연재를 의뢰한다.¹⁰⁾

9) 이희정에 따르면 “당시 지식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춘』·『학지광』의 주요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광수는 자신들의 이러한 의도를 실현시켜줄 수 있는 문사로서 가장 적절하였다. 그래서 『매일신보』는 이제까지 순언문으로만 연재해 오던 소설란에 대한 정책을 바꾸면서 그를 적극적으로 유입하여 『무정』을 연재케 한다. 그러므로 번안·번역소설이 아닌 이광수의 창작소설 『무정』이 순언문이 아니라 국한문혼용으로 연재된다는 예고는 이 작품이 『매일신보』 편집진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상기시킨다.” 이희정,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 『매일신보』』, 소명출판, 2008, p.202.

요컨대 『무정』은 노블로서의 성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조선을 미개 식민지로 일본과 미국을 문명 제국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일본을 한국 문명화의 강력한 모범이자 후원 세력으로 묘사하는 소설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즉 『무정』은 조선을 근대 제국들의 문명이 이식되어야 하는 식민의 영토로, 일본과 서구를 식민 영토에 문명을 전파하는 문명의 기원으로 재현하는 방식으로 근대 제국의 식민주의를 공공연히 승인한다. 달리 말해, 이광수는 『무정』에서 일본과 서구를 근대의 식민주의적 계기가 작동하는 제국의 영토로 상상하지 않는 한계를 보인다. 다음 예문을 읽어 보기로 하자.

형식과 선형은 지금 미국 시카고 대학 사년생인데 내내 몸이 건강하였으며 금년 구월에 졸업하고는 전후의 구라파를 한번 돌아 본국에 돌아올 예정이며...(중략)...병욱은 음악학교를 졸업하고 자기의 힘으로 돈을 벌어서 독일 백림에 이태 동안 유학을 하고 금년 겨울에 형식의 일행을 기다려 시베리아 철도로 같이 돌아올 예정이며 영채도 금년 봄에 상야 음악학교 피아노과와 성악과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아직 동경에 있는 중인데 그 역시 구월경에 서울로 돌아오겠다.11)

10) 이영아에 따르면, “1910년대 『매일신보』에게는 다른 ‘경쟁’ 신문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점적인 판매 부수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었다. “문제는 총독부의 기관지로서 전략해 버린 이 신문을 구매, 구독하려는 조선인이 많지 않은 현실이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8년 이후로 만부 이상의 구독률을 자랑하였지만 『매일신보』로 바뀌면서 판매부수는 3천부를 밑돌게 되었다. 이 지점에서 『매일신보』에도 연재소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식민정책을 홍보, 선전하고 통감부 시책을 알리기 위해선, 일단 이 신문을 사서 읽는 독자가 있어야 했고, 그 하나의 해결책을 소설 연재에서 찾았던 것이다.” 이영아, 『1910년대 『매일신보』 연재소설의 대중성 획득 과정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3집, 2007, pp.48-49.

11) 이광수, 『무정』, 동아출판사, 1995, p.377.

『무정』의 결말부는 『무정』이 근대 제국의 식민주의를 적극적으로 승인하는 소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결말부에서 형식과 선형은 미국에서, 병욱은 독일에서, 영채는 일본에서 소위 선진 지식을 학습하고 귀국을 준비 중인 계몽 지식인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급속히 탈바꿈하고 있다. 『무정』의 결말부에서 이들은 더는 갈등을 반복하지 않는, 오로지 선진 지식을 맹렬하게 학습하는 선남선녀로 탄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서구를 문명의 기원으로 상상하는 대목은 본질적으로 근대의 식민주의적 계기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봐야 한다. 이광수는 서구를 근대의 식민주의적 계기가 작동하는 영토로 이해하기보다는 문명개화의 요람으로 상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다. 이 대목이 바로 이광수 『무정』의 한계이다. 이광수는 『무정』에서 근대의 이면을 투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그는 『무정』에서 근대를 문명의 계기로 이야기할 따름이지, 근대의 부정적 계기를 미처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 부정적 계기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분열과 노예의 삶을 강요하는 근대 제국의 식민주의 기획이다. 황중연의 지적처럼 『무정』이 “제국의 질서 속에 동시대 한국 사회를 위치시켜 재현하는 것은 한국인들이 정치적 주권을 잃어버리고 문화상 탈구를 겪고 있던 당시에는 비록 한정된 계급과 지역의 경험에 시야를 제한한 약점이 있을지라도 삶의 현재성에 대해 예민한 리얼리즘의 경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¹²⁾, 이 소설이 일본 제국주의의 권력과 질서, 권위를 문화적으로 승인한 서사라는 것은 부인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흔히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적 사례로 인용되어온 이광수의 『무정』은 그 긍정적인 문학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제국주의와 공모한 소설이라는 비판에

12) 황중연, 앞의 논문, p.291.

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다.¹³⁾

이렇게 한국 근대문학의 기원의 한 사례로 간주되는 이광수 『무정』의 한계를 감안하자면, 신채호는 단연 우람한 존재로 보인다. 신채호는 도래하는 근대를 단지 문명의 계기로 이해한 게 아니었다. 그는 근대의 식민주의적 계기에 대해 누구보다 날카롭게 이해했으며, 이 이해를 바탕으로 근대 전복과 저항의 문학을 기획한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이 없지는 않다. 근대 전복과 저항적 글쓰기의 측면에서 신채호는 주목받을 수 있겠지만, 노블로서의 소설이라는 개념에 비춰보자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나 한국 근대문학, 특히 근대소설을 읽고 해석하는 그 일련의 작업이 노블로서의 소설이란 개념에 한정될 이유가 없다.¹⁴⁾

다시 신채호 문학의 비노블적 성격에 대해 더 묻기로 하자. 신채호 문학이 노블에 미달한다는 비판은 암암리에 신채호 문학을 노블이라는 장르 체계에 귀속시키려는 연구자의 욕망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게 되면, 신채호의 영웅 전기들은 노블에 현격하게 미달된 사례로 취급될 수

13) 최주한에 따르면, “이광수는 『매일신보』의 지면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총독부의 특별한 지시 아래 오도답과 민정 시찰을 위한 조선 행각에 앞장서 『오도답파기』를 남기는 등, 자신의 문제를 널리 인정받으면서 조선과 총독부의 동시적 주목 아래 화려한 문필 활동을 벌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장편 『무정』이 『매일신보』에 연재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같은 맥락이 전제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다.” 최주한, 『제국 권력에의 야망과 반감 사이에서』, 소명출판, 2005, p.39.

14) 노블로서의 소설 개념은 “미적 자율성의 계보를 한국근대문학사의 중심축으로 설정하는 시각”이라 하겠다. 이에 대해 하정일은 “계몽의 이념에 투철했던 박은식이나 신채호의 문학은 미적 자율성의 계보에 속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미적 자율성의 계보학으로는 신경향파문학이라든가 192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문학을 주도한 프로문학의 역사성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며 한국 근대문학의 계보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투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정일, 『급진적 근대기획과 탈식민 문학의 기원』,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p.19.

있으며, 실제 그런 평가들이 상당하다. 문제는 이와 같은 노블중심주의적 소설관이 오히려 한국 근대소설의 문학적 실상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한국 근대문학 연구자와 독자에게 중요한 것은 실상으로서의 문학이지 개념으로서의 문학이 아닌 까닭이다. 즉 노블로서의 소설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근대문학의 실상이며, 이 실상 중에는 신채호와 같은 비노블적 문학도 존재했다는 것이다. 노블로서의 소설 개념을 앞세우기보다는 실상으로 존재했던 문학들을 읽고 해석하는 작업, 나아가 이 문학들의 긴장과 갈등, 융합 관계를 고찰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신채호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방식으로 도래하는 근대에 마주하고자 했으며 또 그 이면을 투시하려고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정치 이념과 사상에 구속되지 않는 열린 주체로서의 신채호를 다시금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신채호를 열린 주체로 형성시킨 동력이 근대 역사의 발견에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신채호의 역사 개념은 기본적으로 근대의 억압적 계기에 저항하는 측면, 즉 근대 제국의 식민주의를 전복하고 비판할 목적에서 상상되고 재현되는 특징을 보인다. 더 본질적으로는 신채호의 역사의 발견이 노예적 삶을 강요하는 일본 제국에 대한 문화적 투쟁의 차원에서 제기되었다는 것이며, 이런 취지에서 신채호는 역사의 발견을 통해 주체 형성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겠다.

歷史란 무엇이뇨. 人類社會의 ‘我’와 ‘非我’의 鬪爭이 時間부터 發展하며 空間부터 擴大하는 心的 活動의 狀態의 記錄이니 世界史라 하면 世界人類의 그리 되어 온 狀態의 記錄이요 朝鮮史라 하면 朝鮮民族의 그리 되어 온 狀態의 記錄이니라.

무엇을 ‘我’라 하며 무엇을 ‘非我’라 하느냐? 김히 팔 것 업시 앓지 말하자

면, 무릇 主觀的 位置에 선 者를 我라 하고 그 外에는 非我라 한다. 일예면 朝鮮人은 朝鮮을 我라 하고 英·露·法·美…… 등을 非我라 하지만 英·美·法·露…… 등은 저마다 제 나라를 我라 하고 朝鮮을 非我라 하며, 無産階級은 無産階級을 我라 하고 地主나 資本家……등을 非我라. 하지만 地主나 資本家……등은 각기 제 ㅈ치를 我라 하고 無産階級을 非我라 하며 이 뿐 아니라 學問에나 技術에나 職業에나 意見에나, 그밖계무엇에던지 반듯이 本位인 我가 있으면 따라서 我와 對峙한 非我が 있고 我의 中에 도 我와 非我が 있으면 非我 中에도 또 我와 非我が 있다. 그리하여 我에 대한 非我的 接觸이 煩劇할수록 非我에 대한 我的 奮鬪가 더욱 猛烈하여 人類社會의 活動이 休息될 사이가 업스며 歷史의 前途가 完結될 날이 업나니, 그럼으로 歷史는 我와 非我的 鬪爭의 記錄이니라.¹⁵⁾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으로 정의한다. 예컨대 조선을 ‘아’로 정의하면 근대 제국에 해당하는 영, 미, 법, 노 등이 ‘비아’이며, 이 ‘비아’들이 ‘아’에 대한 접촉이 맹렬해질수록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서의 역사는 지속되는 것이라고 신채호는 말하고 있다. 이렇게 신채호처럼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정의할 때, 역사는 막연한 과거를 지칭하는 강담적 차원의 역사와는 거리를 둔다. 즉 신채호가 말하는 역사는 어떤 고정된 절대 개념이 아니라 실체로서의 ‘아’와 ‘비아’의 투쟁 속에서 형성되는 사건이자 개념인 것이다. 이렇게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인해 완결되지 않은 역사로 이해하면서 ‘아’는 자신에게 강요되는 근대의 식민주의적 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 ‘비아’와의 투쟁을 마다하지 않는다고 상상한다. 요컨대 신채호는 역사란 ‘비아’에 해당하는 근대 제국의 식민주의를 전복, 비판함과 동시에 그 새로운 전망의 길을 열어주는 진리

15) 단재신채호전집 편찬위원회, 『조선사』, 『단재신채호전집』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p.601.

에 해당하며, 이 진리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역동적인 투쟁 과정에서 발견된다고 말하고 있다.¹⁶⁾ 그런데 이 진리는 주체의 진리로 간주되어도 무방해 보인다. 주체는 ‘야’와 ‘비아’의 투쟁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간 상태로 ‘비아’로부터의 노예적 예속을 거부하고 오로지 ‘야’를 지향하는 상태와 상황을 뜻한다. ‘비아’에 예속된 ‘야’가 아닌, 오로지 ‘야’의 ‘야’를 구성하고 구현하는 게 주체의 삶이라고 신채호는 판단하고 있다.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의 문제를 서구형 노블의 이식과 적응의 문제로 간주한다면, 신채호 문학은 비주류 문학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이광수, 김동인, 염상섭 등 내로라하는 한국 근대문인들이 하나같이 서구형 노블을 의식하고 적응한 작가였다는 것을 감안하자면, 신채호 문학은 왠지 어색해 보일 수도 있다. 더구나 「꿈하늘」이나 「용과 용의 대격전」처럼 어떤 장르에 소속되지 않는 작품까지 생각하자면 신채호 문학의 위상은 더욱 이채로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신채호 문학이 기본적으로 근대 극복의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구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까닭에 신채호 문학의 비주류적 성격이 오히려 한국 근대소설 전체에 신선한 충격과 긴장을 주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앞으로 더 밝혀내야 하겠지만 신채호 문학은 단지 문학의 사회적 효용성을 입증하는 사례 정도로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 흔히 신채호 문학은 문학의 자율성과는 다른 성격, 예컨대 사회적 효용성을 극단적으로 추구한 사례로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하게 고찰해야 할 대목은 그의 문학이 본질적으로 근대 제국이 유포하는 식민주의와 침예하게 갈등하고 긴장

16) 신채호에게 ‘야’는 개인적 ‘야’에서부터 사회적, 민족적 ‘야’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 범주가 다양하다. 신채호가 말하는 ‘야’는 자아에서부터 우리 민족에 이르는 광범위한 의미의 스펙트럼을 지닌다. 이에 대해서는 하정일의 앞의 논문을 참고. 하정일, 앞의 논문, p.22.

하면서 기획되고 전개된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신채호 문학은 이광수 문학이 간과한 근대의 식민주의적 계기를 깊이 있게 통찰하는 성과의 사례로 독해될 수 있으며 신채호 문학 다시 읽기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며 수행되어야 한다.

Ⅲ. 신채호 문학 다시 읽기의 의의와 과제

신채호 문학 다시 읽기의 시론적 고찰은 신채호의 신화를 해체하면서 동시에 그를 열린 근대 주체로 이해하는 의미를 띤다. 오늘날 신채호는 불멸의 주인공처럼 대중들에게 기억되거나 회자되는 실정이다. 일제와 타협하지 않는 지조와 절개, 오로지 구국의 열정으로 망명지에서 절치부심한 지사로 우리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신채호를 지조와 절개의 화신으로 기억하는 한 신채호 문학 다시 읽기의 의미는 새로워질 수 없다. 특히 신채호처럼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극적인 변모를 거듭한 인물일 경우에는, 그를 더 열린 주체로 간주하는 독법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주문을 경청해야 한다.

단재 신채호의 사상 정신 세계는 선부른 일면적 재단을 절대 불허할 만큼 광활·고준하다. 한국 근대사상의 큰 수원지로 평가되고 근대정신사의 척도로 삼아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역사가 · 언론인 · 문학인, 그리고 계몽운동가 · 독립운동가로서의 끊임없는 활동 이력과 고난에 찬 삶의 행적들이 거기에 다 투영되어 있고, 동시에 그것들을 추동시킨 힘이기도 했다. 그래서 남다른 사 언 행 일치의 경지가 일구어진 것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그의 사상적 고투와 연술은 역사와 인간, 민족과 국가, 정치와 법, 학문과 사상, 문학과 예술, 도덕과 혁명 등의 문제에 두루 미치면서 두터운 의미층을 형성시켜 내장

하게 되었다. 그런 만큼 그의 사상은 다양한 해석학적 지평의 개입을 늘 자극하면서 후대 역사의 메시기마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설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¹⁷⁾

김영범은 그의 논문 「신채호의 조선혁명의 길」에서 신채호에 관한 대단히 주목할 만한 독해 방식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단재 신채호의 사상 정신 세계는 선부른 일면적 재단”을 불허한다. 그 이유는 신채호의 역사가 · 언론인 · 문학인 그리고 계몽운동가로서 끊임없는 활동 이력과 고난에 찬 행적으로 만들어진 그의 사상이 그 자체로 두터운 의미층을 형성하고 있는 까닭에 언제나 새로운 관점, 새로운 설명을 요구하는 까닭이다. 요컨대 신채호의 사상은 일면적 재단과 독해를 용인할 만큼 획일적이거나 단편적인 게 아니라는 말이다. 광활 고준한 신채호의 사상은 언제나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설명을 요구하는 까닭에 후대 연구자들과 독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시도해야 한다고 김영범은 그의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다.

필자 역시 신채호가 한국 근대문학사의 인물 중 삶의 깊이와 넓이가 독보적인 까닭에 그를 일면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신채호가 어느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글쓰기를 실천하거나 혹은 그 영역과 관련된 삶을 살아간 인물이 아닌 까닭이다. 그는 언론인이며 문인이었고 문인이며 역사학자였고 역사학자이며 언론인이었다. 그의 글쓰기는 오늘날처럼 정교화된 특정 장르에 집중하는 글쓰기가 아니라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글쓰기였고 그 주제도 역사, 인간, 해방, 정치, 법 등 근대적 주제들에 향해 있었다.

신채호 문학 다시 읽기의 시론적 고찰은 신채호가 치열한 자기 부정과 갱신으로 자기를 열린 근대 주체로 만들어 간 존재라는 점을 주목하며 이

17) 김영범, 「신채호의 조선혁명의 길」, 『한국근현대사연구』제18집, 2001, p.39.

뤄져야 한다. 신채호의 사후 이래 그를 정의하고 설명하는 개념들이 적지 않다. 예컨대 민족주의, 사회진화주의, 계몽주의, 아나키즘, 민족주의, 자강주의, 의열단, 혁명, 주체 등 신채호를 정의하는 개념들이 숭하다. 그런데 이 개념들이 신채호의 전체적 진실을 정의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 이 개념들은 신채호의 일부 혹은 신채호의 단편을 설명하거나 해석할 수 있을 따름이다.

신채호 문학 다시 읽기의 시론적 고찰은 이 개념들을 맹신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한다. 신채호의 광활 고준한 사상이나 그 삶을 일정한 개념에 의지해 이해하거나 확정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신채호는 어떤 특정 정치 개념에 구속되지 않고자 그의 ‘아’를 찾으려 했고 이를 위해 망명을 불사했다. 신채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朝鮮사람은 매양 利害 以外에서 眞理를 차지라 함으로 釋迦가 들어오면 朝鮮의 釋迦가 되지 안코 釋迦의 朝鮮이 되며 孔子가 들어오면 朝鮮의 孔子가 되지 안코 孔子의 朝鮮이 되며 무슨 主義가 들어와도 朝鮮의 主義가 되지 안코 主義의 朝鮮이 되라 한다. 그리하여 道德과 主義를 위하는 朝鮮은 잇고 朝鮮을 위하는 道德과 主義는 업다.

아! 이것이 朝鮮의 特色이나. 特色이라면 特色이나 奴隸의 特色이다. 나는 朝鮮의 道德과 朝鮮의 主義를 爲하여 罵하라 한다.¹⁸⁾

『동아일보』에 기고된 신채호의 『낭객의 신년만필』 중 한 대목이다. 이 글의 소재목은 ‘도덕과 주의의 표준’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열린 근대 주체의 탄생을 열망하는 신채호의 주체적 상상력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신채호는 이 글에서 “옛날의 도덕이나 금일의 주의”란 것의 그 표준이 어

18) 『낭객의 신년만필』, 『단체신채호전집』6,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p.583.

디서 온 것이냐고 묻는다. 이 표준이란 것은 사실 자의적인 이해 관계의 산물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신채호의 주장이다. 신채호에 따르면 석가, 공자, 예수, 마르크스, 크로포트킨 등은 인류 이해의 대변자로 보이지만 중국, 인도, 일본 등 각 나라는 이들을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석가 공자 예수 등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신채호는 비판한다. 조선 사람은 매양 진리를 ‘이해’ 이외에서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조선에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된다고 신채호는 개탄한다. 석가와 공자 등을 조선의 석가와 공자로 주체화해야 한다는 신채호의 주장은 본질적으로 식민주의적 근대를 거부하는 주체적인 ‘야’의 탄생을 열망하는 것으로도 이해된다.

열린 근대 주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특정 정치 이념과 개념, 지점에 구속되지 않는 부정과 갱신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또한 그것은 자기 분열을 강요하는 식민주의적 근대와 단절하는 근대 극복의 자세를 뜻할 것이다. 그렇기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신채호를 어떤 특정 정치 이념으로 재단하는 독해 방식을 거부해야 한다. 신채호 문학을 다시 읽는 것은 『낭객의 신년만필』이 말하듯 민족주의, 사회진화주의, 계몽주의, 아나키즘, 민족주의, 자강주의, 의열단, 혁명의 신채호를 읽는 게 아니라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회진화주의, 계몽주의, 아나키즘, 민족주의, 자강주의, 의열단, 혁명을 발견하고 그 의미를 읽는 일이다. 또한 더 중요하게는 신채호의 ‘야’를 구성하는 이 개념들의 긴장과 융합 관계를 읽는 일일 것이다.

필자는 본고에서 신채호 문학 다시 읽기의 의미를 시론적 차원에서 고찰하면서 이와 부합하는 신채호의 작품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지는 않았다. 특히 필자는 본고에서 이광수 문학의 노블주의적 성격에 견주어 신

채호 문학의 성격을 재해석하는 의의를 밝혔다. 신채호를 기억하고 다시 읽는 작업은 자기 분열을 강요하는 근대 제국의 식민주의 기획을 뛰어넘으려는 신채호의 ‘아’를 기억하고 독해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에 부합하는 신채호 문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후일의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단체신채호전집 편찬위원회, 『단체신채호전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7.

2. 논문 및 단행본

김민환, 『개화기민족지의 사회사상』, 나남, 1988.

김영범, 『신채호의 조선혁명의 길』, 『한국근현대사연구』제18집, 2001.

이만열, 『단체 신채호의 민족운동과 역사연구』,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편, 『단체 신채호의 사상과 민족운동』, 경인출판사, 2010.

이영아, 『1910년대 『매일신보』 연재소설의 대중성 획득 과정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제23집, 2007, pp.48-49.

이희정, 『한국근대소설의 형성과 『매일신보』』, 소명출판, 2008.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임화문학예술전집』2, 소명출판, 2009.

최원식, 『친일문학의 선구자, 이인직』,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최주한, 『제국 권력에의 야망과 반감 사이에서』, 소명출판, 2005.

하정일, 『급진적 근대기획과 탈식민 문학의 기원』, 민족문학사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4.

황종연, 『노블, 청년, 제국 - 한국 근대소설의 통국가간 시작』, 『상허학보』14집, 2005, p.291.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Rereading the Shin Chae-ho's Literature

Yang, Ji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literary meanings of Shin Chae-ho and his text rereading at tentative dimension.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at the Shin Chae-ho and his text was text as well as problematic individual to clarify other origin of Korean modern literature. In the end,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Korean modern literature how we look at and understand. This researcher conducts the discussion, considering Shin Chae-ho as open modern subject in the field of Korean modern literature.

To achieve this, this study was to conduct the discussion in a comparison way of Shin Chae-ho's status with the Yi Kwang-su's literary status who contributed a good deal towards introducing the fiction in the form of novel to Korea. Shin Chae-ho was a human who aspired to become unrestricted open modern subject as well as to refuse to be a modern slave who adapted to the colonial modernity that Japan took lead.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 pays attention to his intellectual path crossing the party concept, case, and boundary as well as the political oppression that the colonial modernity imposes. Shin Chae-ho's intellectual path summarized as discovery of history ultimately becomes power to open other origin of Korean modern literature. To conclude, this researcher pays attention to this point and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meaning of rereading the Shin Chae-ho's Literature.

Key Word : rereading, subject, novel, concept, ideology, boundary, colonial modernity

양진오

소속 : 대구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 tell65@hanmail.net

이 논문은 2016년 2월 29일 투고되어
2016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4월 16일 게재 확정됨.